

# 구례 산동중학교, '나눔으로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실시

### 교직원·학생만 참여...교육성과물 발표하는 형식 진행

### 산동오케스트라 연주·단체줄넘기 공연·한국무용 등

구례산동중학교(교장 김영희)는 24일 전교생이 강당에 모여서 '나눔으로 화합하는 한마음 축제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축제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학부모님들을 비롯한 외부 손님들은 일체 초청하지 않고 교직원과 학생만으로 2020학년도 교육성과물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무대공연을 중심으로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성과물인 산동오케스트라 연주와 단체줄넘기 공연, 한국무용, 댄스, 밴드, 트로트 메들리 등 각자의 끼를 뽐내는 장기자랑으로 이루어졌으며, 2부에서는 융합 수업 방식의

교과수업 시간을 활용해 교과특성에 맞게 지도한 결과물인 팝 콘서트로 개인 팝송, 반별 팝송, 전교생 팝송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발표했다.

당초에 코로나-19로 인해 동영상 촬영을 한 후, 교실에서 온라인 시청을 하려고 했지만 전교생이 함께하는 자리를 갖자는 학생들의 간절한 바람과, 코로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작은학교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려 공연을 한다면 교육적으로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겠다는 교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추진하게 되었다.

오늘 축제 행사를 맡아 준비한 최소담 선생

님은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른 해보다 모든 것이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노력으로 축제장 안에서만 큰 코로나-19가 앓아간 우리의 학교생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팝 콘서트를 지도한 황금희 선생님은 "학생들 모두가 자기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멋진 무대였으며 지도교사로서 더불어 함께하는 뜻깊고 울림을 주는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축제의 사회자를 맡고 함께 공연을 한 3학년 구영미 학생은 "2부 팝 콘서트를 영어로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우들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준비하는 과정이 매우 즐거웠고, 내년에 후배들이 더 멋진 무대를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이번 축제는 우리 구례산동중 학생들이 자



신들의 꿈과 끼를 최대한 발휘하여 표현능력 및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좋은 기회였으며, 전교 학생다모임에서 공연 기획, 준비, 실행까지

모두 주관하여 진행함으로써 더 의미가 있고 보람된 활동이었다.

구례=박진호 기자



## 나주 노안남초,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벤트

### 교장·운영위원장 산타변장

나주 노안남초등학교(교장 정정하)는 성탄절을 맞이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실시하였다. 정정하 교장과 이진환 학교운영위원장은 직접 산타로 변장하고, 최재덕 학부모회장은 익살스러운 트리로 변장해 칭찬카드와 선물을 들고 유치원과 각학년 교실로 깜짝 방문을 하였다. 갑자기 나타난 산타들 덕분에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환호하며 즐거운 한 때를 보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유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 생활을 해야 하는 힘들었던 2020년이었기에, 크리스마스이브 하루라도 학교구성원 모두가 동심으로 돌아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보내기 위해 기획되었다.

또 이날은 노안남초 학생노리더 다모임을 하는 마지막 날로 자치부서별로 준비한 K-POP 상식과 등굣길 안전 골든벨 퀴즈 대회도 열려 학생들의 재미를 더했다. 행사를 마치면서 학생들은 각자 자기의 소원을 종이에 적어 산타 양말에 넣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코로나 종식 마스크 벗기', '여행 자유롭게 가기' 등 이라고 적기도 해 올해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유치원생 이00은 "크리스마스이브에 산타가 온다고 선생님께 들었는데 진짜였어요."라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1학년 학생 김00은 "교장선생님이 아무래도 산타 같아요. 칭찬카드와 선물을 받으니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감사합니다."라며 인사를 하였다.

기동취재본부

## 함평 전남보건고,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2차 워크숍 성료

### 자발적 혁신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함평 전남보건고등학교(교장 서승기)는 지난 18일 보건간호과 실습교육관(나이팅게일관)에서 2020.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2차 워크숍을 전 교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전남보건고는 특성화고 브랜드화를 위한 중등 직업교육 혁신 교육부 공모 사업인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년 동안 교육과정분과, 지역사회자원분과, 진로취업지원분과, 자율동아리분과, 창의혁신분과, 행정지원분과로 추진 체계를 갖추고 '꿈을 이루는 학교'를 목표로 자발적 혁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각 분과별 추진 사업 성과 및 개선 방안을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코로나-19 심각단계로 인하여 교내에서 운영되었다. 각 분과장의 분과별 우수 사업 설명과 운영 결과 보완점을 발표하여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전교 직원의 소통과 공감이 이루어졌다.

분과별 발표 중 지역사회자원분과 전00교사는 1년 동안의 사업 결과를 케플 송 배경으로 동영상 제작하여 발표하면서 "우리 학교 특색사업인 보건간호과의 '찾아가는 지역사회 의료봉사활동'은 함평 지역(월야면, 나산면) 방문·운영이 코로나로 인하여

여 계획 만큼 실시하는 것은 어려웠지만,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봉사활동으로 반갑게 맞이해주신 지역 어른들의 만족도가 높아져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업무 담당 김00교사는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강사 초청이 어려워 위 교직원만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어 참여한 선생님들의 관심이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을 우려하였으나, 각 분과장들의 1년 동안 추진 사업 결과를 공유하면서 전체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으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만족한다. 1년간 고생한 결과를 공유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함평=김평훈 기자

##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 호평

### 전체 96.09% 만족

광주창의융합교육원 내 원어민화상센터가 1년 동안 정규수업, 일대일 수업, 방과 후 수업, 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은 호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수업 만족도 조사' 결과 정규 수업, 일대일 수업, 방과 후 수업, 방학 프로그램의 만족도는 각각 97.32%, 97.22%, 93.69%, 96.14%이고, 전체 만족도는 96.09%에 달했다.

광주창의융합교육원 양정기 원장은 "원어민 화상플랫폼은 1년 이상의 화상수업 경력이 있는 원어민 교사들이 화상수업에 적합한 교재를 자체 개발해 수업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며 "비록 비대면 화상수업이지만 센터 내 원어민 교사들은 교사-학생 간 상호작용을 높이기 위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개인별·수준별 수업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화상수업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021년 1월18~29일 운영되는 '겨울방학 원어민 원격화상 영어 프로그램'은 신청자가 많아 몇 분 이내로 신청이 마감됐다.

조인호기자



삶을 가꾸는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